

보도	2025.11.13.(목) 14:30	배포	2025.11.13.(목)
----	----------------------	----	----------------

담 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옥배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조영범 (02-3145-5680)
	분쟁조정3국 분쟁조정기획팀	책임자	국 장	김세모 (02-3145-5720)
		담당자	팀 장	이종진 (02-3145-5712)

##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

### I 토론회 개요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일정: <sup>1차</sup>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11/13),  
<sup>2차</sup>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sup>3차</sup>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 그 첫번째 순서로, '25.11.13.(목)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하여 금투업계를 대표하여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금투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금번 토론회에는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패널로 참석하여 생생한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1차, 금투상품)」 개요

- ☑ 주 제 :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 ☑ 일 시 : '25.11.13.(목) 14:30 ~ 16:30(2h)
-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 [주관기관]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

이찬진 금감원장, 금소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주관기관외] 서유석 금투협회장 및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 패널 ☞ (붙임) 참조

시간	행사 내용
<b>1부: 사전행사</b> 14:30 ~ 14:45	<b>【개회사】</b>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b>【축사】</b> 김승원,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b>2부: 주제발표</b> 14:45 ~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15분) ☞ 금융감독원 김세모 분쟁조정3국장</li> <li>▶ ② 금투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15분) ☞ 금융감독원 박시문 자산운용감독국장</li> <li>▶ ③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15분) ☞ 서울대학교 최승주 교수</li> </ul>
<b>3부: 종합토론</b> 15:30 ~ 16:20	▶ 종합 토론
15:20 ~ 16:30	<b>【마무리 발언 및 기념 사진 촬영】</b>

## II 개회사·축사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논의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힘
-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 희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금융 소비자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밝힘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역외펀드의 국내 직판, 벨기에펀드 피해자의 재조정 요구 등 펀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이어서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감독당국 감시를 당부
- 김현정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편면적 구속력’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밝히고,

- 사모펀드,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사고 후의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논의내용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지원 의사를 밝힘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사후적 피해구제보다 사전적 피해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투자상품의 기획·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 협회는 관련 모범규준 정비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III 주제발표 주요 내용

- 발표①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발표② 금투 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③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음
- [발표①]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 ▶ 제기된 주요 문제점

- (적합성 원칙 위반)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
- (설명 의무 위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 누락·미흡,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 불충분, 손실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 등
- (기타)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행위, 상품출시 이후 확정된 대출조건 미안내 등

#### ▶ 개선 과제

- 투자성향 분석시 객관적 증빙 제시,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핵심설명서 기재 사항 개선, 판매직원 이해상충 방지 등 필요

○ [발표②]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 ① (설계단계 사전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 확립 →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 시각으로 펀드설계 검증
- ② (투자자 핵심위험 안내 강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위험을 명확·구체적으로 기술 →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 ③ (운용사·판매사간 위험 인수인계 체계 정비) 운용사는 주요 위험을 판매사에게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

○ [발표③]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

- ▶ (개요) 서울대 연구진은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추가 설명서를 제공하는 시범사업(3종)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
  - [①안] 손익구조 도표 개선: 손실과 이익구조를 분리하고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
  - [②안] 유사 상품 정보 추가 제공: 동일한 위험등급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아질 수록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나타나는 상품 비교표를 추가 제공
  - [③안]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 추가 제공 : 원금보존추구형 상품(DLB, ELB)과 원금 비보장(원금 100% 손실 가능) 상품을 비교
- ▶ (시범사업 효과) ①,③안을 추가 제공한 경우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토록 하는 효과가 나타남(②안 분석중)
- ▶ (시사점) 행동경제학을 활용하여(넛지 방식) 금융상품 정보제공 방식을 섬세하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대안적 규제를 제시

## IV 향후 계획

□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

※ <별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개회사 1부  
김승원 의원 축사 1부  
김현정 의원 축사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구 분		성 명	소 속
<b>주제발표</b> *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 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		최승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문가 패널	소비자 ·시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학계 ·연구소 ·법조계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업계	지영근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부장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 본부장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